*캐릭터 설명

이정구의 아내 김미자/ 62세: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흙수저 가장인 이정구. 어렵게 공부를 해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대기업 임원으로 출세를 하며 집과 가족밖에 모르는 가장이다. 그러기에 자식들을 의사, 변호사로 부족함 없이 키웠지만 정년 퇴직을 한 지금 오히려 가족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. 그의 아내로써 살아온 김미자는 회사만을 위해 살아온 이정구가 마음속에 외로움의 상처로 남게된다. 정작 가족들에게 필요한 시간에 가족들을 외면하고 회사만 생각해왔던 이정구에게 무관심으로 똑 같은 상처를 주려고 한다.

김미자: (고급스럽게 차려입고 동창회에 나가려한다. 정구는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있다) 다녀올께요.

이정구: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.

김미자: (정색을 하며 그 자리에 멈춰 정면을 바라본다) 무슨 이야기요? 언제부터 우리가 이야기 하고 살았나요?
이렇게 지내는게 우리한테 더 나을 지도 몰라요.

이정구: 이렇게 지내는게 가족이요?

김미자: (구두를 신으려다 멈추고 정색해 이정구를 바라본다) 가족요? 당신은 언제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했었나요?
당신 미국에 있는 민호가 몇 살 인줄 이나 아세요? 군대 갔을 때 당신 아들위해 면회라도 한번 가보셨어요?
이제 민호도 결혼 할 나이가 꽉 찼어요. 난 정말 민호가 당신을 안 닮길 매일 밤 기도해요.
그리고 지금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 말도 안되는 생각…듣는 것 만으로도 참을 수 없으니 그런 말 삼가해주세요.
우리 가족이 외롭게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퇴직하고 안방차지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니.
(나가려다 다시 멈춰 이야기한다)
그리고 한가지 확실히 해요 우리.
마음 한 구석이라도 그 간 돈 갖다 줬으니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았다 라는 식의 보상심리를 원한다면
이 집에서 나가줘요. 그간 당신이랑 살아준 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그 돈 보다 더 크니 말이예요.
(구두를 마져 신고 나간다)

CUT.